

▶ 우진문화재단 '신인출판-춤 신예의 데뷔'

몸짓으로 '인간'을 그리다

박주희(현대무용), 채서운(컨템포러리댄즈), 하지혜(컨템포러리댄즈)가 우진문화재단의 무용 신진작가 양성을 위한 '신인출판-춤 신예의 데뷔' 무대에서 무용가로서 비상을 시작한다.

박주희는 우리 안의 소유욕·욕심·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체온이 결여돼 있고 이로 인해 존재의 가치와 소중함을 점점 잃어가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화두로 삼는다.

그녀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주제로 한 공연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귀하고 연약하며 뜨겁게 소중하다는 것을 몸짓으로 그려낸다.

채서운은 '파로라마' 무대를 통해 삶의 가벼움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인생의 각 고비마다 절정(갈등)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기에 가슴 시리게 아픈 추억도 훗날 아름답고 소중히 기억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내가 그린 세상과 다른 현실에, 그리고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순간들에 연연해하지 말고 매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를 작품에 담는다.

안진정은 주체가 자신 속에 존재하는 생각·감정·표상·소망 등을 자신으로부터 떼어내 그것들을 외부 세계나 타인에게 이전시켜 그 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만드는 심리적 작용 '투사'를 표현한다. 그녀는 투사는 자신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등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타인에게 옮겨 놓았을 뿐, 자신이 보고자 하는 진실을 외면하고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한다.

이들 신진무용가들의 데뷔 공연은 오는 25일 오후 7시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전석 만원. /정혜은 기자



하지혜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내일 개봉작 사랑에 대한 여배우의 고민

김민희 주연 '밤의 해변에서 혼자'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홍상수 감독의 19번째 장편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를 23일 개봉·상영한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유부남과의 사랑으로 괴로워하는 여배우 '영희'의 독일 함부르크와 한국 강릉에서의 짧은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구성된 영화는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오르면서 해외 평단으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특히 주연을 맡은 김민희는 베를린영화제 은곰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베니스영화제의 강수연, 칸영화제의 전도연에 이어 3대 국제영화제에서 연기상을 수상한 배우로 등극했다. /정혜은 기자



원주문화재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여자 모집

(재)원주문화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nue)는 2017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초등학생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사업 중 하나로, 아동·청소년·가족들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복합문화지구 누에(nue)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실현실-다빈치 코딩'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컴퓨터 언어인 코딩의 원리를 이해하고 빛·소리·움직임을 이용한 문화예술체험, 우리지역 맵 만들기 등 총 30차시 과정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문 강사진이 매주 다양한 복합체험 방식의 수업을 할 예정이다. /정혜은 기자

삼국지연의 영웅호걸들의 무용담, 우리 소리로

국립민속국악원 지기학 판소리마당 '적벽가' 25일 오후 3시 예음헌에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 토요국악초대석은 지기학의 판소리마당 '적벽가'를 25일 오후 3시 예음헌에서 선보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이수자인 지기학 예술감독은 창극과 무용에 이르기까지 전통예술 공연분야를 두루 섭렵했다. 창극·춤·소리극 등 다수의 창극작품 연출로 국립민속국악원이 창극 특성화 기관으로 발돋움 하는 데 이바지 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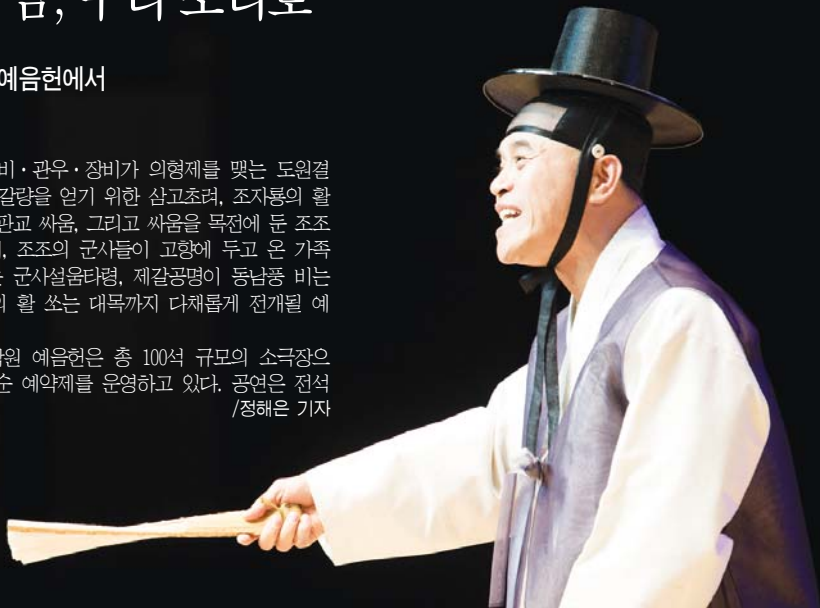
주요 작품으로는 창극 내사랑 춘향·신관놀음 오라가락·춘향실록을 비롯해 춤극 타고남은 적벽·부채춤 바람을 일으키다·토끼야 너 어디가?와 소리극 싸아악·victor-춘향 등이 있다.

이날 공연에서 들려주는 '적벽가'는 삼국지연의를 바탕으로 조조와 공명·유비 등 영웅호걸들의 무용담을 담고 있는 판소리다. 이는 현존하는 판소리 5대장 가운데 가장 남성적이고 호방한 소리 대목이 많아 공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제대로 부르기 어려운 소리 중 하나

로 꼽힌다.

무대에는 유비·관우·장비가 의형제를 맺는 도원결의,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한 삼고초려, 조조룡의 활약, 장비의 장판교 싸움, 그리고 싸움을 목전에 둔 조조진영의 연환계, 조조의 군사들이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군사설움터령, 제갈공명이 동남풍 비는 대목, 조조룡의 활 쏘는 대목까지 다채롭게 전개될 예정이다.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은 총 100석 규모의 소극장으로 매회 선착순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연은 전석 무료다. /정혜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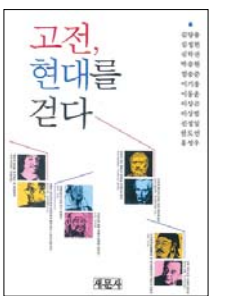
원광대 프라임 인문학진흥사업단

'고전, 현대를 걷다' 출간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프라임 인문학진흥사업단에서는 동서양의 주요 고전을 현대적 의미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한 신간 도서 <고전, 현대를 걷다>를 출간했다.

사업단 산하 융복합인문치료전문가양성사업교실(책임교수 김정현)에서 출간한 <고전, 현대를 걷다>는 새로운 교과과정 개발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서양의 주요 고전 16권을 소개하고, 그 현대적 의미를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고전과 현대적 의미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된 이 도서는 학생들의 교양 교육에 새로운 깊이와 인문학적 상상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전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도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2017 MUJU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천라북도!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7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MUJU

2017. 6.24.(토)-30.(금)

전북 무주 태권도원

세계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One World, One Taekwondo at Taekwondowon



